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7. 23.(목) 15:00부터

담 당 자 이재연 연구위원
(02-3775-9021, jaeyeonl@kiri.or.kr)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02-3775-9115)

매 수 총 8매

보험연구원, 세미나 개최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과 과제」

- 일 시 : 7월 23일(목) 14:00~16:00

- 장 소 :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7층)

- “포용보험, 직접 지원 넘어 자생적 시장생태계로 나아가야”
- “보험연구원, 포용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민관협력 생태계 구축 제안”
- “그물망 넘어 트램펄린으로...포용보험, 사회안전망이자 산업 지속가능성으로”

○ 보험연구원(원장 김현수)은 7월 23일(목) 오후 2시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적 영역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과 시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특히 취약계층의 보장공백 실태와 포용보험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 해외 혁신사례를 반영한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학계·정책·업계 전문가들이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 김현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용보험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안전망으로 키워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초고속 고령화, 디지털 격차가 맞물린 ‘**초위험 사회**’에서 **취약계층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빠르게 커지는 위험은 공적 영역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보험연구원이 “**정교한 연구를 통해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 세미나에서는 먼저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초위험 사회의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을 발표하며, 이어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이 ‘**글로벌 혁신 사례와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첫 발표를 맡은 이재연 연구위원은 포용보험을 보험 소외계층이 필요한 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이는 **위험공동체를 유지·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용보험이 지속되기 위해 직접 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유지되는 ‘**자생적 시장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동안의 대응은 본업과 분리된 사회공헌이나 재원 직접 투입에 머물러 지원이 멈추면 보장도 함께 멈추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보험의 공급·전달·활용 각 단계에 남아 있는 장벽을 해소하고 정부·보험회사·지역사회가 역할을 나누는 **민관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포용보험이 추락을 막는 데 그치는 그물망식 안전망을 넘어, **취약계층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트램펄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혁신사례의 핵심이 디지털 효율성(High-Tech)과 인적 신뢰(High-Touch)의 결합에 있다고 분석하고, 개도국의 디지털 혁신과 선진국의 제도적 보호·돌봄망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재구성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했다.

- 이어 국내 포용보험이 시혜적 서민금융이라는 협소한 인식과 가입률 중심의 단기 성과주의에 머물러 ‘**포용보험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고착됐다고 진단하며, 기존 보험회사와 소액단기보험회사에 각각 유인을 부여하는 투트랙 규제 유연

화와 함께 리스크 풀링·데이터 연계를 맡을 컨트롤타워로서 ‘포용보험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 발표에 이어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은미 서민금융진흥원 과장, 방병호 손해보험협회 부장, 유명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차경옥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보험산업의 포용보험 참여 방안과 역할,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첨부1. 세미나 세부일정

■ 첨부2. 발표자료 요약문

첨부1. 세미나 세부일정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 ~ 14:10	개 회 사 김현수 보험연구원 원장
14:10 ~ 14:30	주제발표1 초위험 사회의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4:30 ~ 15:00	주제발표2 글로벌 혁신 사례와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 방안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
15:00 ~ 15:10	Break Time
15:10 ~ 16:00	패널토론 좌 장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토 론 김은미 서민금융진흥원 과장 방병호 손해보험협회 부장 유명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차경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가나다순

- ◆ 프로그램(발표주제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동시중계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차지원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2. 발표자료 요약문

〈 제1주제 : 초위험 사회의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 〉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초위험 사회의 포용보험과 보험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초위험 사회에서 확대되는 보장 공백을 통해 **포용보험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위험공동체 유지·확대라는 관점에서 **보험산업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포용보험을 위한 **과제** 제시
- **(포용보험의 필요성)** 이질적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초위험 사회에서는 예측·분산·독립성이라는 전통적 보험원리가 흔들려, 시장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보장공백이 남음
 - 기후재난·인구구조 변화·노동시장 재편·디지털 격차 등 손해 이력이 없고 동시다발적이며 서로 동조화되는 위험은 기존 방식으로 인수하기 어려움
 - 위험의 변화는 사회 전체가 겪지만, 그 손실은 대비와 회복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에 집중됨
- **(왜 보험산업의 과제인가)** 보험 소외계층의 보장 접근을 지원하는 포용보험은 곧 보험산업이 위험공동체를 유지·확대하는 일로,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동시에 산업의 기반과 직결됨
 - 공적 재정만으로는 빠르게 확대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고, 포용보험도 결국 위험을 사전에 분산하는 일인 만큼 보험산업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임
 - 나아가 위험공동체가 좁아지면 보험산업이 설 기반도 함께 좁아지므로, 취약계층 보호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은 같은 방향임
- **(현행 접근의 한계)** 그동안 업계의 대응은 본업과 분리된 사회공헌에 가깝고, 정부의 정책 대응 또한 재원의 직접 투입에 머물러, 지원이 멈추면 보장도 함께 멈추는 구조임
 - 업계의 사회공헌은 봉사·기부형 활동에 가까워 상품 개발·인수 역량으로 전

환되지 않고, 경영 여건에 따라 규모가 좌우됨

- 정부의 무상가입 · 보험료 경감과 공동기금 기반의 상생보험도 가입자 부담은 덜어주지만, 재원이 끊기면 보장도 멈춰 자생하는 시장생태계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음

- **(향후 과제)** 포용보험이 지속되려면 직접 지원에 기대지 않고 데이터 · 위험 분담 · 수익성 · 전달체계를 갖춘 자생적 시장생태계로 나아가야 함

- 공급 단계의 손해통계 부재와 낮은 수익성, 전달 단계의 채널 유인 부족, 활용 단계의 낮은 보험 문해력 등 각 단계에 남은 장벽을 해소해 시장이 작동할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초위험 사회의 위험은 한 주체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 · 보험회사 · 지역사회가 역할을 나누는 민관협력 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함

- 한국형 포용보험의 과제는 위험공동체 유지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 포용보험은 공공과 민간이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함

〈 제2주제 : 글로벌 혁신사례와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방안〉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

- ‘글로벌 혁신사례와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초위험 사회에서 확대되는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자생적인 포용보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과 구체적 실행 과제 제시
- (연구배경 및 지향점 : 트램펄린 안전망) 기후위기, 초고령화, 비정형 노동 확산 등 복합위기 속에서 전통적 상업보험의 보장공백이 심화됨에 따라 소극적 구호에 머무는 기존 안전망을 넘어 일상으로의 재도약을 돕는 트램펄린(Trampoline)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함
 - 국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0% 이상으로 포화상태이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취약계층 가입률은 52.1%에 그치고, 70대 이상 건강보험 가입률은 28.7%로 급감하는 역진적 보장공백이 존재
 - 대출 중심 서민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경제적 회복탄력성을 보호하는 사전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 (글로벌 혁신사례 분석 및 시사점) 글로벌 포용보험의 핵심 동인은 디지털 효율성(High-Tech)과 인적 신뢰자산(High-Touch)의 결합에 있으며, 국가별 성숙도에 따라 차별화된 진화 경로를 보임
 - [개도국형 : 생존형 모델] 필리핀(전당포 오프라인 망 + GCash 핀테크 + 위성 기반 CLIMBS 파라메트릭 보험)과 인도(디지털 공공 인프라 Bima Sugam + 150만 BC 네트워크 및 여성 비마 바학)는 인프라 공백을 기술과 인적 신뢰로 극복
 - [선진국형 : 적응형 모델] 영국(FCA 소비자의무 규제를 통한 빈곤 프리미엄 해소, Fair4All 옵트아웃 모델)과 일본(소액단기보험의 비례규제와 고독사·치매 특화 상품)은 복합위기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예방과 실물 돌봄서비스 통합
 - [시사점] 사후 금전 보상에서 사전 예방 및 실물 돌봄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비용을 낮추되 현장 인적 자원을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피지털(Phygital) 전략이 필수적

- **(국내 포용금융·보험 한계 진단)** 지난 20년간 자금융통(대출) 중심의 정책에 편중되어 오며, 포용보험을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는 구조적 한계 노출
 - **[인식의 편식]** 포용보험 고유의 위험관리 기능보다 시혜적 서민금융 수단으로 접근하여 신용생명보험 등 자금융통 목적 상품에 편중
 - **[컨트롤타워 부재]** 휴면보험금 및 포용금융 창구의 과편화로 금융당국과 복지부처·지자체 간 실물 복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거버넌스 미흡
 - **[단기 성과주의]** 가시적 가입률·보급률 지표에 매몰되어 실질적 회복탄력성 성과 평가체계가 미비하고, 공공데이터 연계 제한으로 기초요율 데이터가 부족
 -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방안)** 해외 성공 메커니즘을 모듈화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재구성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과 3대 핵심 실행전략을 제안함
 - **[공공·민간 듀얼 트랙 피지털 생태계]** 청년·프리랜서를 위해 빅테크·플랫폼 내 초소액보험을 임베디드화(High-Tech)하고, 고령·취약계층을 위해 우체국망과 민간 설계사를 ‘사회적 리스크 코디네이터’로 활용하여 현장에서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시리스 케어(Cashless Care)(High-Touch) 구축
 - **[공급 다변화를 위한 투트랙 규제 유연화]** 기존 보험회사에는 포용보험 지정·인증제를 통해 K-ICS 위험계수 우대,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 감경, 상생금융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액단기보험회사에는 자본금 완화, IFRS17 평가예외, 간이 지급여력제도 등 적용
 - **(컨트롤타워 : 포용보험재단 설립)** 민관 협력(PPP)과 위험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특별법을 통해 포용보험 국가재보험기금 수탁관리, 소액전업사용 공동 IT 클라우드 제공, 정부 복지망-민간 API 데이터 가교 역할을 수행함
-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은 취약계층 보장공백 해소를 통해 미래 국가 재정 부담을 사전에 완화하고, 보험산업에는 따뜻한 기술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임

* 피지털(Phygital) : 피지컬(Physical)과 디지털(Digital)의 합성어로, 디지털 플랫폼의 효율성과 오프라인 인적 네트워크의 신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운영 형태